

송아지에게 모유를 저능력우는 과감한 도태를

(협 회)

1. 우유가 남고 있다.

- 84년 후반기부터 우유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우유소비가 우유생산량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 '86년 3월 현재까지의 분유재고가 1만톤에 이르고 있다.
- 85년도는 우유생산량은 84년보다 19.3%나 증가된 100만톤이나 우유소비량은 17.7%가 증가된 98만톤이었다.
- 우유소비량 증가도 전지분유의 수출, 대용유제조용 원료 사용, 학교급식확대, 군급식확대 등 정책적소비량을 제외한 일반소비 증가는 9.4%에 불과하다.

2. 남는 우유를 줄이는 길

- 1980년의 우유잉여시에도 우리나라농가들은 대용유 대신 모유를 먹였으며 저능력우는 과감히 도태하여 위기를 면하였던 경험이 있다.
- 현재의 이 위기는 대용유 대신 모유로 송아지를 키우고 저능력우를 과감히 도태하여 목장에서부터 우유소비를 확대하고 우유생산을 억제하는데서 우유의 잉여는 둔화된다.

3. 송아지에 모유 먹이기

가. 초유급여

- 초유는 갓난 송아지가 필요로하는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(보통 우유보다 2~10배의 영양분).
- 초유는 병원균에 대한 면역물질을 가지고 있고 태변(배내똥)을 배설하는 작용을 한다.
- 초유는 분만 후 가능한한 빠른 시간(30분 이내)에 1.5~2kg의 초유를 급여하되 최소한 3일은 급여하여야 한다.

나. 젖먹이기

- 모유의 1일 급여량은 송아지 체중의 8~10%정도 주어야 한다.
- 급여회수는 2회가 좋으며 1일 급여량을 2회로 나누어 규칙적으로 급여하는 것이 좋다(2회 급여는 3~4회 급여시와 발육에 차이가 없다).
- 급여온도는 38~40℃ 정도로 하여 급여하는 것이 이상적인 온도이나 2~5℃의 냉장상태에서 급여하여도 송아지 발육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. 모유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하여 급여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.

○ 급여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르게는 4주, 늦게는 8주까지 급여하나 이유사료의 질이 좋아 집에 따라 급여기간이 단축되어 35일 전후에 이유하는 것이 많다. 그러나 이유시기는 송아지의 발육상태를 보아 결정하는 것이 좋다.

○ 급여계획표

모유급여 계획(예)

(kg / 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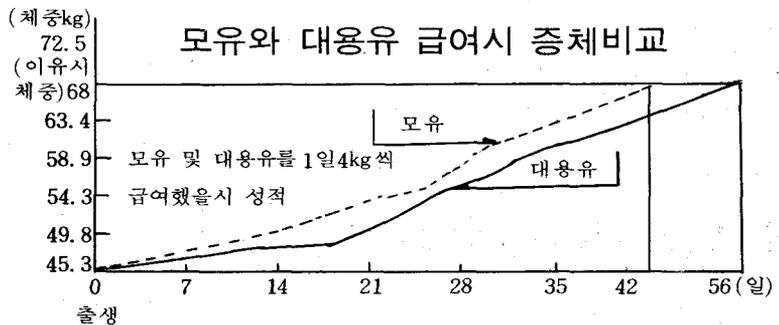
나 이	생시체중(kg) 젖먹이는 기간(주)	40			45		
		6	7	8	5	6	7
1~3 일		3.6	3.6	3.6	4	4	4
4~7 일		3.6	3.6	3.6	4	4	4
2 주		4	4	4	4.5	4.5	4.5
3 주		5	5	5	5	5	5
4 주		4	5	5	3.6	4.5	5
5 주		2.7	4	4	2.3	2.7	3.6
6 주		1.8	2.7	3.0	-	1.8	2.7
7 주		-	1.8	2.3	-	-	1.8
8 주		-	-	1.4	-	-	-

※ 1~3 주일은 초유급여

다. 모유로 송아지를 키울 때 좋은 점

- 대용유를 잘 만든다하여도 모유를 능가할 수는 없다.
- 모유를 먹이므로 정상적인 발육을 하며 자라서 번식능력이 좋아지고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.

송아지 체중이 68kg 에 도달하는 기간은 모유로 키울때는 6 주, 대용유로 키울때는 8 주로 대용유 급여시에 송아지 성장은 모유 급여에 비해 다소 늦어집니다.



라. 이유사료 먹이기

- 이유사료(인공유 등)
이유사료는 송아지가 7~10일령부터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.
- 어린 송아지에게 착유사료나 기타 육성사료를 먹여서는 안된다. 단백질과 에너지 수준이 낮고 또 요소가 들어있어 송아지에게 이롭지 못하다.
- 조사료급여
건초는 생후 1 주령(7 일) 이 되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하여 제 1 위의 발달을 촉진시킨다. 건초는 질이 좋은 것을 먹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수분이 많은 청초나 엔시레지를 급여하면 송아지의 건물 섭취량을 떨어뜨리게 된다.